

## 원태상 기념강연



최성욱  
연세대학교 교수

난류(亂流)는 우리 삶 도처에 있다.  
우리의 폐를 들락날락하는 들숨과 날숨이 난류이다.  
우리가 앉아 있는 방에서 대류에 의한 공기 흐름이 난류이다.  
거리에 부는 바람이 난류이고  
난류 확산에 의해 먼지가 흩어진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난류로 배출되고  
난류 항력이 자동차 속도를 조절한다.

흐르는 강물도 난류이다.  
난류는 바닥으로 운동량을 전달하여 평형을 이루며  
바닥의 모래를 연행시켜 하류에 유사를 공급한다.  
바닥에 하상형상을 만들어  
홍수 때 수위를 조절하고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확산시켜 수질을 보전한다.  
그렇게 하천에서 난류는 도처에 있다.

2025년 원태상 기념강연의 주제는 “난류 계산의 기술 (The art of computing turbulent flows)”이다. 강연자 최성욱 교수는 1997년 연세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난류 계산, 유사이송, 그리고 생태수리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최성욱 교수는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응용생태공학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3개 학회에서 논문집편집위원장과 학술부회장을 역임하였다.

2019년 한국수자원학회에 난류위원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2017년에는 수리분과위원회 활동 성과로 “난류수리학”을 강형식, 류권규, 백중철, 이승오와 공동 집필,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총 9권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높은 인용지수를 보이고 있다.

현재 IAHR의 Fellow, Eco-hydraulics Committee Member (2016-2022), Council Member이며, 우리 학회 영문논문집인 Journal of Hydro-Environment Research와 미국 토목학회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에서 각각 Chief Editor와 Associate Editor로 봉사하고 있다. 2026년 IAHR-APD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성공을 위해 애쓰는 중이다.

## ■ 학력

1987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1989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1996 미국 일리노이대학 (UIUC)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 ■ 경력

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무부학장  
전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BK 사업단장  
전 대한토목학회 학술부회장, 국제위원회위원장, 논문집편집위원장  
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부회장, 논문집편집위원장, 학회발전계획수립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응용생태공학회 회장  
현 환경부 하천횡단수자원시설안전성평가기술 개발사업단 단장  
현 Chair, Local organizing Committee, IAHR-APD 2026, Incheon, Korea  
현 Fellow & Council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ydro-Environment Engineering and Research (IAHR)  
현 Chief Editor, Journal of Hydro-Environment Research, Elsevier  
현 Assoc. Editor,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